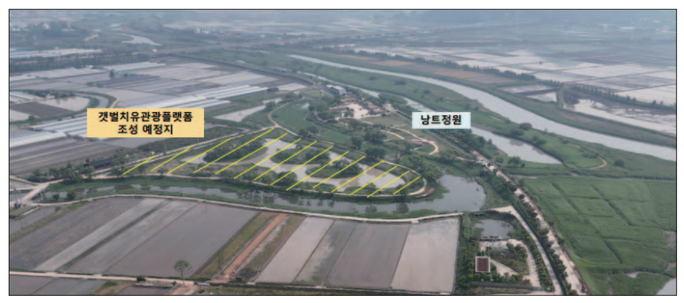
순천 생태자원 거점 '갯벌치유관광플랫폼' 조성

시, 사업비 320억 투입…2027년 말 준공 목표
원시 생태성 복원…"미래형 관광도시로 도약"



순천시가 순천만의 생태적 원시성을 살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치유 거점으로 갯벌치유관광플랫폼 조성에 나선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조성 테마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60억원을 포함한 총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순천시 교량동 복원습지 인근에 조성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은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닌 '치유와 생태의 중심'이라는 미래 도시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된다. 특히 순천시는 람사르협약의 핵심 원칙을 설계 전 과정에 반영해 순천만이 가진 원시 생태성을 훼손하지 않고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건물 또한 자연을 방해하지 않는 건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습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고, 최소한의 구조로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핵심 프로그램은 자연 기반 치유 콘텐츠다. 갯벌 명상, 음식 치유, 마을스테이, 탐조 및 사운드워킹 등 방문객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플랫폼을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결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 농산물, 숙박, 음식, 문화콘텐츠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 통합 관광 모델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유 전문가 양성, 로컬 비즈니스 확대, 관련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은 순천만의 자연을 존중하고, 회복의 에너지를 품은 공간이 될 것이다"며 "치유산업의 메카이자, 미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

정철원 담양군수, 현장중심 소통행정 실현

8월까지 325개 마을 군민과의 대화

정철원 담양군수가 현장중심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객사리, 담주리, 천변리 경로당에서 정철원 군수가 군민에게 군정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 청취와 질의를 받았다.

이번 대화는 군민이 행정에 다가오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현장 행정'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군민들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비롯해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물으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정 군수는 8월까지 12개 읍면 325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소통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군정의 중심은 늘 군민이어야 한다"며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군민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화를 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함께 해결하며, 군민과 함께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을 책임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325개 마을을 대상으로 군민과의 대화에 나선 정철원 담양군수가 군민에게 군정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나주, 폐현수막 재활용…자원 순환 모델 구축

㈜카카오 등과 업무협약

나주시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과 손잡고 폐현수막 재활용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4개 지자체, ㈜카카오 등 4개 기업와 함께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강릉시, 세종시, 청주시, 창원시와 함께 선정된 5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나주를 비롯한 지자체와 ㈜카카오, SK케미칼, 사회적기업 '세진플러스', 친환경 스타트업 기업 '리벨롭' 4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폐현수막은 매년 전국에서 수천t 이상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로 소각 시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매립 시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등 환경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폐현수막을 단순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참여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수거하고 기업은 이를 재생 원료로 가공·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폐현수막 재활용 협약을 통해 자원 순환 기술과 시설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활용 생태계의 선도 모델을 구축해 전국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여수~통영~부산'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국내 최초 3개 시·도 연계
12~15일 10개국 229명 참가

'2025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여수시, 통영시, 부산시 등 남해안 일대에서 펼쳐진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10개국 24척의 요트와 229명의 선수가 참가해 3일간 총 263㎞ 구간을 항해하는 장거리 레이스를 치른다. 크루저급 ORC I, ORC II 두 클래스로 나눠 진행되며, 여수와 통영, 부산을 잇는 코스가 마련돼 남해안의 빼어난 해안선을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시는 대회 기간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14일부터 15일까지 소호요트마리나 일대에서 윈드서핑, 카약, 딩기요트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또 15일에는 '크루저요트 해상관람' 행사가 열려 일반 시민들이 요트 경기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4일 오후에는 여수에서 환영 만찬이 열려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화합을 다지는 자리도 마련된다.

정기명 시장은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수, 통영, 부산이 한데 어우러진 이 대회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남해안 바다의 아름다움과 해양스포츠의 매력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초의 3개 시·도 연계 요트대회다. 2020년 시작된 이 대회는 남해안권 상생 발전과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관광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개회식은 매년 여수, 통영, 부산 순으로 돌아가며 개최되며, 올해는 13일 통영시에서 열린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LOCAL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정해박해 성지순례길 '성료'
곡성성당~기차마을 6㎞ 구간

곡성군은 2027년 정해박해 200주년과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개최를 앞두고,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종교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그 시작은 최근 광주대교구 북부1지구 사목회가 주관한 '정해박해 성지순례길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순례·관광 도시로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대교구 북부1지구 소속 10개 성당의 사목회 임원 103명과 조상래 곡성군수를 비롯한 준비 TF팀 등이 참여해 순례길의 동선 적정성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고 순례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해박해 성지순례길은 곡성성당(옥터 성지)을 시작으로 묘천리 다목적 복합센터, 정해박해 진원지인 오곡면 승법리, 동화정원, 뚝방생태공원을 지나 기차마을 전통시장까지 약 6㎞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도보로 걸으며 곡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장소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어, 신앙적 의미는 물론 관광 콘텐츠로서의 경쟁력도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순천, 신규 IP 제작 지원사업
17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순천시는 신규 IP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초기 창·제작비를 지원하는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의 참가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콘텐츠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애니메이션 및 웹툰 분야의 창·제작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모집대상은 20인 이하 중소 콘텐츠 기업이며 입주예정 기업과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애니메이션 최대 1억1000만원, 웹툰 5000만원으로 총 8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기획안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10개 과제, 웹툰 15개 과제를 선정해 각 30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하며, 2차 최종 결과물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별 3개 우수작품을 최종 선정해 각 8000만원, 40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